

지역 소식통

‘부안 새만금의 곤충’

특별전... 내달까지 운영

부안군은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가 열리는 개최지로 이를 홍보하고 기념하기 위한 ‘부안 새만금의 곤충’ 특별전을 7월 1일~8월 31까지 부안누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에서 전시한다.

2017년 8월 전북도 부안군 새만금에서 개최가 확정된 후 부안누에타운 손민우 박사는 새만금경생태단지과 협력하여 이곳의 곤충 상을 탐사해 2021년 ‘새만금 아리알의 곤충’ 기획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것을 리뉴얼하여 세계스카우트잰버리의 성공적인 개최와 홍보를 위해 2023 ‘부안 새만금의 곤충’ 특별전으로 세계 청소년들에게 부안 새만금에서 서식하는 곤충을 선보이고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5년간의 준비를 모두 마쳤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023년 세계스카우트잰버리의 성공을 기원하며, 세계적인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변산반도의 곤충 콘텐츠를 반영한 제19회 부안 새만금의 곤충 특별전이 부안을 찾는 세계의 청소년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주요 관광지 등

웹툰 플랫폼으로 홍보

부안군은 주요 관광지 및 특산물 등을 웹툰 플랫폼을 활용하여 홍보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클랩과 네이버 베스트드전에 연재 중인 웹툰 ‘이화우 흘날릴 제’는 조선시대 대표 여류시인으로 평가받는 ‘이매창’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웹툰으로 총 12화 연재 중 6화 분량이 부안군을 배경으로 부안의 주요 자원을 홍보한다. 6화까지 연재하면서 부안향교, 부안 오디, 매정대마관, 마실길 등 주요 관광지 특산품을 홍보하였다.

웹툰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다양한 세대에 홍보가 가능하며 한번 업로드된 웹툰은 언제든지 구독자들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안을 홍보하는 좋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총력

기상청,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주의보 발령

정읍시 ‘장마 기간 방역 수칙 내용’ 준수 등 당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마철을 맞아 기상청이 6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협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정읍시가 ‘장마 기간 방역 수칙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급성형의 경우 바이러스에 의한 치사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한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넓은 범위 지역 전파 시 양돈산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식

량자원 안정성 확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전염병 중 하나다.

이에 시는 집중호우가 그친 뒤 양돈농장 대상 공동방제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소독, 생식회 재도포, 울타리·소독시설 재정비 등 농장 방역이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장마기간 양돈농장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으로는 △지하수 이용 농장 폐지공급 음용수 상수도로 대체(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염소계 소독 후 이용) △주변 농경지나 하천, 산 방

문을 절대 금지하고 외출 자재 △농장 주변 멧돼지 폐사체 등 발견 시 즉시 환경부서에 신고 △농장에 외부인과 차량 출입 통제 및 소독 강화 △손 씻기와 장화갈아신기 및 구서·구충 등 22가지 기본행동수칙 준수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차량·물품·사람으로 인해 농장으로 유입된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통계 기준 정읍시 돼지 사육두수는 32만138두로 전국순위 4위 규모에 해당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수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대비에 만전을”

주요 위험지역 현장 점검 등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30일 주요 위험지역 현장 점검에 나서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를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먼저, 심덕섭 군수는 고창을 교촌3지구 급경사지 현장을 방문했다. 교촌3지구 급경사지는 지난 1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군에서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며 관리하고 있다.

심 군수는 “300m에 달하는 교촌3지구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내년도 사업비 국가예산 15억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심 군수는 고창을 신월리 산사태 취약지역을 찾아 주변 양계장 등 피해가 없도록 지시했다. 또한 제철을 맞은 수박 농사에 피해가 없는지 대산면 하우스 침수 취약지역을 찾아 침수 대비를 점검했다.



아산면 학전리 임도 사업장을 찾아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 등 산사태 위험은 없는지 공사 관계자와 담당 사업 부서에 점검을 지시했다.

끝으로 부안면 수남리 배수펌프장을 찾아 농어촌공사와 함께 특별 점검에 나섰다. 수남리 배수펌프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집중

호우 시 물이 원활하게 갈라천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사전 통제에 철저를 기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디지털타운 조성 공모 선정

특교세 8억6천만원 확보...라이브 방송용 스마트스튜디오 조성 등

고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구축을 통해 지역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인구소멸지역 14개 시·도 55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고창군을 포함해 총 9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군은 ‘디지털리터러시 향상을 통한 스마트 행복 타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용 스마트 스튜디오, 1인 미디어 크리에이

터 양성, 관내 경로당에 여가활동 지원용 화상회의, 작은목욕탕 등에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한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게 되는 특별교부세 8억 6000만원에 군비 2억5000만원을 더해 총 11억1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창군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서 ‘우수상’

부안읍 석동마을 - 역사·문화적 자원 홍보·마을 사업사례

백산면 회포마을 - 유희공간 활용 마을 박물관 조성 사례 등 소개

부안군은 지난 29일 전북도에서 개최한 제10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해 2개 마을(부안읍 석동마을, 백산면 회포마을)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으로는 각각 시상금 250만원과 마을현판이 부상으로 주어지게 되었다.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시상금 250만원)을 수상한 부안읍 석동마을(이장 양종현)은 도동서원터, 최광지 홍패, 9개의 재실 등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알리고, 주민들이 함께 성공적으로 이뤄낸 다양한 마을 사업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부안 남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석동마을로 소풍’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농촌만들기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시상금 250만원)을 수상한 백산면 회포마을(이장 변도운)은 마을사랑거리인 백산성, 수리부엉이 소개와 함께 유희공간을 활용한 마을 박물관, 폐가를 주민쉼터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 마을 시네마 공간 조성 등 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선·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유대를 형성하고 삶의질이 향상된 모습을 잘 담아내어 소개했다.

부안군은 작년 제9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고 올해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우수마을 발굴과 마을 역량강화에서 앞장서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인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컸다.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고, 지속적인 마을 자원조사와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제적으로 우수마을을 육성하여 이 같은 좋은 성과를 낸 것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콘테스트를 위해 행정·중간지원조직·마을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며 “마을공동체를 위한 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

정읍시가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29일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서부사업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했다.

이로써 정읍시에는 본소(정우면), 북부(신대인읍), 서남권(소성면), 동부(옹동면), 서부(영원면) 등 총 5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구축해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됐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이학수 시장, 정읍시의회 의원, 농업관련 단체장들이 비롯한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부사업소는 총사업비 23억원(국비 6억원, 시비 17억원)을 투입해 5,900㎡ 부지에 보관창고 포함 연면적 727㎡

규모로 지어졌다. 이곳에는 임대용 농기계 43종 166대를 갖추고 6월 1일부터 임대업무를 개시했다.

서부사업소 개소로 서부지역 농업인들이 가까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농업인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몇 년간 지속된 경제활동 위축과 농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 5개 권역에 임대사업소를 구축하게 됐다”며 “수요가 많은 기흥을 중심으로 농기계를 구입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